

추백리진단액, 사용실적감소 무엇을 의미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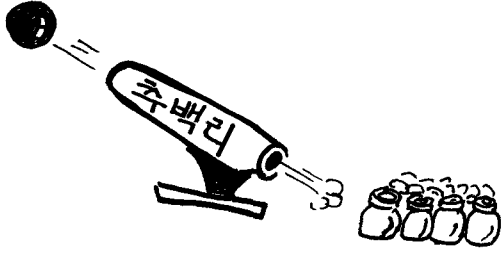
추백리는 세균성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하여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살모넬라병의 일종으로 19세기말 미국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으나 응집반응에 의한 진단방법이 발견되어 현재는 발생이 없는 나라가 많다.

이병은 수직·수평으로 난계대 감염이 되고 있는데 설사를 동반 10일령경에 30~50%까지 폐사가 일어난다. 종계에 대하여는 40~70일령부터 검사하며 양성계는 모두 도태시키도록 되어 있다.

종계의 생산성 및 실용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본회는 지난 '85년 5월부터 창구를 일원화 하여 추백리 진단액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사용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1년은 '90년 대비 15%가 감소하였고, 다시 '92년에는 '91년에 비해 57%가 대폭 감소하여 추백리 예방에 매우 소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즈음 육계값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출하할 닭이 없어 울상이라는 소식이다. 세미에서 하이로 키울 수가 없다고 이 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뚜렷한 병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산란계도 성적이 나쁘다고 같은 이야기 뿐이다.



현재 닭의 질병이 모두 추백리라는 진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손쉽게 진단액으로 관찰이 가능한 질병도 관리를 하지 않는데 또다른 전염병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만큼 양계질병은 복합적으로 상존해 있는 것 같다.

양계인들은 걸핏하면 손해보고 나서 병아리가 나뻐다고 하소연 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되어 있는데, 거의가 본지에 공개하는 추백리진단액 사용실적을 보고 추백리만이라도 검사를 하는 종계장의 병아리를 선택하는 농가는 흔치 않다.

왜, 창구를 일원화 해서 공급중단 까지 뿔뿔했던 추백리 진단액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종계장은 추백리 검색 결과 60% 이상이 양성계라는 곳도 있다. 그 종계는 아직도 종란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데 혈청검사도 하지 않고, 추백리진단액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 종계가 생산하는 병아리의 성적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자기가 거래하는 부화장의 종계에 대한 추백리진단액 사용실적을 공개할 때마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양계업, 외국인 투자 허용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정책이 표방되면서 경쟁력이 미약한 우리나라 농민들은 갖은 고초를 겪어 오고 있다. 일단 외국의 축산물과 경쟁을 하기 위해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어 나가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일부에서는 생산비가 약간 높다하더라도 양계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진단까지 하였고 전반적인 구조조정에는 관심을 쏟지 않았던 일면도 엿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93년 7월 1일부터 농림업도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개방업종을 발표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또다른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져 대비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방업종을 보면 기타 가공사육업(오리 등)이 '96.1.1부터, 양계, 양돈, 낙동, 복합농업(축산+작물생산)이, 제조업중 가공도살업이, '97.1.1부터 외국인투자가 자유화 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건비, 지가, 원자재 운반 등이 외국인이 투자하나 내국인이 투자하나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식으로 경시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미 몇년전 태국의 CP 그룹이 한국에 사료공장설립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반려했던 사실이 있듯이 국제간의 무역이나 투자는 어느 한가지의 조건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축산법이 개정되어 허가업이 등록업으로 또는 상한선이 없어지는 등 국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되어져 외국인 투자는 그만큼 더 수월해졌고, 몇몇 업체는 사료, 동물약품 등에 기반을 두고 있어 투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또한 최대 신선육 시장인 일본이 옆에 있어 투자가치를 낮다고만 보기에는 속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껏 수입축산물과 싸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아예 축산업 자체가 개방이 된다면 신선한 강점만을 내세워 적당한 생산량 조절로 양계업을 지속할 수만도 없게 된다.



양계업은 기술상 고밀도 사육이 가능하기에 토지이용률이 높아 더욱 외국인 투자가 용이로울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 양계업도 외국에 투자를 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때가 되었다. 개방되어 모두를 내어주는 것보다 수출과 수입을 병행할 수 있는 우리 자본의 해외 투자도 수입개방을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수란, 일반계란 이미지 손상시키는 것이 문제다.

일반란을 위생처리하여 상표를 붙여 시중에 본격 판매를 시작한 것은 한냉G·P사업부로 거슬러 올라갈수있다. 상표등록 출원을 냈다가 위생란은 개념상 특정 계란에만 상표를 붙여 사용할 수 없는 보편적인 단어라 하여 반려가 된 적이 있다.

이를 시발로 하여 요드란, 장수란, 자연란, 해초란 등이 속속 위생개념을 넘어서 특정 영양성분을 부각시켜 이른바 영양란 전국시대의 길을 열었다고 본다.

일단 계란에 특정 상표를 붙인, 이른바 명찰을 달았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업적이 될지는 몰라도, 전면수입개방을 목전에 두고 가격

경쟁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양계산업이 나아갈 방향과는 좀 역행하는 감이 없지는 않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특수란이란 개념이 영양란으로 바뀌었으며 사료업체에서 판촉경쟁을 위해 만들어낸 영양란까지 합치면 대략 60여종에 이르고 있는데 특수층을 겨냥하여 생산해내는 한정된 영양란 수요를 놓고 치열한 판매전이 일고 있어 계란 자체에 대한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영양란은 대개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압구정 현대, 삼풍, 그랜드 백화점이 제일 많은 종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은 1개당 233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자연란은 242원까지 소비자 가격을 높여 고가상품이 무조건 잘 팔린다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나 보여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영양란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면서 기존의 일반 계란을 상대적으로 영양이 결핍된 상품으로 전락시키거나 먹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이미지를 심어 놓고 있어 아직도 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반란의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생산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양란을 상품화하는데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값도 더 받아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도 일반 계란이 영양적으로 아무런 하지가 없는 이상 원칙을 무시하는 상품생산이나 기존 상품의 이미지 실추를 부추겨서는 안된다.

어쨌든 계란은 건강한 닭이 낳은 계란이면 그 자체로 완전하다. 결국 얼마나 신선한 계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다. **양계**